

# 예술로 점유하는 광장, 다시 연결되는 존재들

전남도립미술관 국제전시 'Occupy'...오는 9월3일까지  
6개국 9명 작가 참여...기억·연대 실천 담은 작품 '한자리'

불안과 상실의 시대, 예술가들의 연대와 기억의 실천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9월3일까지 국제기획전 'Occupy: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의 '점유하는 광장'을 키워드로 삼아 연결과 연대 방식에 대한 탐구에 중심을 둔다.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가, 미래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전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참여 작가 9인의 실험적 작업을 통해 '점유'의 다양한 감각을 풀어낸다.

참여 작가는 한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등 6개국 출신으로 전남 출신 작가 4인을 포함해 총 9명(팀)이 함께한다. 이들은 저마다의 현실과 맥락 속에서 점유를 생존·저항·연대·기억의 형식으로 드러낸다.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은 작가들의 작업에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한국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대형 재난과 사회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작가들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역성과 장소성, 공동체의 감각을 다시 사유하며, 점유를 삶과 기억을 회복하는 실천으로 제시한다.

우크라이나 작가는 전선에 참전 중인 인물로, 생존과 저항의 최전선에서 작업을 이어가며 점유를 존재의 기록으로 환원한다.

튀르키예 작가는 침묵당한 몸과 공간을 소환해 억눌린 존재의 회복과 저항의 제스처로 풀어내며, 홍콩 작가는 국가보안법 이후 사라진 공공성과 기억의 장소를 복원하는 예술적 행위를 통해 연대의 감각을 회복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의 오픈 그룹(Open Group)은 전장의 현실을 담은 설치작업을, 튀르키예의 에르칸 오즈겐은 억압과 침묵의 시간을 영상으로 시각화한 작업을 선보인다. 홍콩 출신 아이작 총와이는 소멸된 공공성과 기억



의 장소를 신체와 영상 언어로 환기한다.

한국 작가로는 장흥 출신 권승찬이 국가보도연맹 사건을 주제로 한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점유를 기억의 회복으로 풀어내고, 곡성 출신 이세현은 사진을 통해 사건의 흔적을 조망한다. 강수지·이하영 작가는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시대의 감각과 정서를 담은 영상 작업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에코 누그로호는 대형 벽화를 통해 참여와 연대의 메시지를, 중국의 진양핑은 도시화와 인간 존재의 교차점을 포착한다. 이산(정문성)은 이불로 형상화한 광장을 통해 공간과 감각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한다.

전시는 섹션 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에 작품을

혼재해 배치했다. 관람객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품 사이의 시간성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아티스트 퍼포먼스와 토크가 예정돼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세계의 선율을 품다'...합창으로 만나는 음악 풍경

오늘 광주시립합창단 마티네 콘서트

세계 곳곳의 문화와 정서가 합창 무대로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의 특별한 오전 공연,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 -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 11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에 열린다.

'어울림'은 광주시립합창단이 선보이는 인기 마티네 시리즈로, 지난해 'Music in Drama & Movie'에 이어 올해도 큰 기대를 모은다.

특히 대극장 로비에는 이색적인 공간을 활용해 더욱 풍성한 울림 속 합창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 예정이다. 지휘자 임창은의 해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다양한 문화권의 합창곡을 여행하듯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곡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정취를 담은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로 문을 연다. 이어 아프리카의 활기를 전하는 'Jambo', 러시아 민요 특유의 경쾌함이 돋보이는 'Kalinka Katiusk



a' 등이 무대에 오른다.

미국의 서정적인 민요 'Shenandoah'는 아가펠라 편곡으로 선보이며, 폴 밀러의 'Peace (A Prayer of St. Francis of Assisi)'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스페인의 플라멩코 리듬이 살아있는 'El Vito', 라트비아 작곡가 에릭 에센발츠의 신비로운 합창곡 'Stars' 등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후반부에는 영국의 '런던 다리', 독일의 '노래는 즐겁다', 미국의 '오 수재너', 중국의 '남아당 자강', 이탈리아의 '오 솔레미오', 뉴질랜드의 '포카레카나야나', 우리나라의 '아리랑'까지 세계 각국의 민요를 메들리로 이어가며 관객의 흥을 끌어올린다. 윤지영 편곡의 흥성합창곡 '비행기'가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최명진 기자

## 현과 소리로 빛나는 전통 향연...제22회 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제전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15일 전통문화관서 경연

가야금 줄 위에 실린 소리가 노래가 돼 울려 퍼진다. 제22회 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제전이 오는 15일 오전 9시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야금병창 단일 종목으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악 경연 행사다. 가야금병창의 대중화와 전통 계승에 기여해온 본 대회는 전통예술의 미학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악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대회는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이사장 문명자)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제전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광주시, 광주 동구청, 광주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며 남도국악사와 ㈜해담촌이 협찬으로 참여한다.

명인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과 상금 200만원, 국가무형문화재 조준석 명장이 제



지난해 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제전 수상자 단체 사진.

작한 가야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일반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학생부 종합대상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명인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향후 본 대회 심사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보유자 문명자 이사장은 "가야금병창은 소리와 줄의 울림이 어우러진 우리 전통 예술의 꽃"이라며 "참가자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이정배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일시: 2025년 5월 9일(금) 장소: 담양(이)ICC 주최: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총동창회 후원: <광주매일신문>



이정배 총동창회장

  
김장관 부회장

  
석성심 부회장

  
이승섭 사무총장

  
이호영 재무이사

  
차의철 창조위원

  
박상봉 회원위원

  
강춘예 봉사위원

  
조분자 비전위원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장 및 회원 일동 -

CMYK